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하는 KUMHO TIRE



매출 5조원 시대 여는 '글로벌 탐티어' 도약

◇올해 매출 5조원 목표...글로벌 탐티어 도약 위한 날갯짓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연결기준 매출액 4조 7천13억원, 영업이익 5천756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했다.

금호타이어는 2025년의 압도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 경영 방침을 '모두 하나되어, 또 한번의 도약'으로 선포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전년 실적을 뛰어넘는 5조1천억원으로 설정해 수익성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신용등급 상승...대내외 신인도 향상

금호타이어는 올해 기업신용등급 향상으로 대내외 신인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올해 금호타이어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A0 (안정적)'에서 'A+' (안정적)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 내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 ▲수익성 중심의 판매믹스(Mix) 개선에 따른 이익창출력 확대 ▲영업 현금흐름 바탕의 차입금 감축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주요 거래처 및 국내의 생산기지를 다각화함으로써 대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췄다고 한신평은 분석했다.

북미 및 유럽지역 유통채널의 공격적 확장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이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차입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용등급 상승으로 금호타이어는 향후 자금 조달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브랜드 신뢰도 상승에 따른 영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전기차 타이어 시장 선점

올해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시장 핵심 전략은 18인치 이상 고인치 프리미엄 제품군의 확대와 고부가가치 전기차(EV) 타이어 시장의 선점이다.

금호타이어는 2025년 기준 43.2%에 달했던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을 올해 47%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신차용(OE) 매출 중 EV 타이어 공급 비중 역시 지난해 20.4%에서 올해 3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 중심에는 SUV 전용 프리미엄 신제품 '크루젠(Crugen) GT Pro'가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인 전 규격 UTQG 트레드웨어 800 기록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획득해 뛰어난 마일리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고유의 소음 저감 및 내마모 성능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EV Technology'를 적용했다.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총 53개의 전방위적 라인업을 갖춰 내연기관과 전기차 시장을 동시에 아우르는 차세대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크루젠 GT Pro는 금호타이어가 지향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상징하는 모델"이라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 금호타이어가 기술 혁신과 견고한 재무 구조 구축, 지역사회 및 협력사와의 두터운 상생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합평 신공장·유럽 공장 건설속도

금호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축은 견고한 글로벌 생산 체계 구축과 사람 중심의 상생 경영이다.

정일택 대표이사 체제 하에 금호타이어는 합평 신공장 및 유럽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며 한국-유럽-북미를 잇는 삼각 글로벌 생산 벨트를 본격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던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노사가 하나로 뭉쳐 도출한 전격적인 합의안을 바탕으로 재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노사는 화재 피해가 없는 광주 1공장의 설비를 신속히 보완해 1일 6천본 수준으로 우선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족한 고무 및 반제품은 곡성공장과 사외에서 조달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구성원의 완벽한 고용보장을 전제로 삼았다. 나아가 합평 빛그린산단에 조성되는 신공장은 1단계로 연간 500만본 생산 규모로 2027년 말까지 완공하고 2028년 1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광주공장 부지의 최종 매각 시점에 맞춰 공장을 전면 이전하

작년 매출 4조7천13억 창사 이래 최대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고부가 제품 확대

합평 신공장 2028년 새 동지 본격 가동 '노사 화합' 광주공장 재건·협력사 지원

고2단계 증설을 추진한다는 치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협력사·임직원 상생 경영

노사 상생의 정신은 협력사 생태계와 임직원 복지로도 이어진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G.설비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150여 명의 협력사 관계자들과 신공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ESG 및 탄소 관리 정책 교육을 실시했다.

협력사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직접 지원하며 상생 경영의 모범을 보인 것이다.

현장 임직원들을 향한 세심한 감성 경영도 돋보인다. 한국 공장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한 잔, 여유한 잔' 캠페인에서는 경영진과 임원들이 직접 커피차에서 따뜻한 음료를 만들어 건넬며 현장 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직급의 벽을 허문 이 진정한 소통은 노사 화합과 전사적 안전 문화 확산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눈부신 훈장을 단 금호타이어는 이제 매출 5조원 시대를 목표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탐티어(Top-Tier)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철저한 품질 혁신,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춘 친환경 공급망 관리, 노사 간의 깊은 신뢰는 금호타이어가 질주할 앞날을 더욱 밝게 비추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인간 중심의 상생 경영이라는 두 바퀴를 장착한 금호타이어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제고

금호타이어는 세계적인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그 사례로 올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5)'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인터네셔널 포럼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 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다.

금호타이어는 프로덕트 콘셉트(Product Concepts) 부문에 '옵니 링(Omni Ring)'을 출품해 본상을 받았다. '옵니 링'은 미래 교통 시스템에 최적화된 모듈형 타이어로 전 방향이동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옵니 링'에는 주행 환경 및 목적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다. 도심 실내 환경에서는 소음 저감과 연비 향상을 고려한 촘촘한 빗살무늬 패턴이, 도시 간 이동 환경에서는 고속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강인한 블록 형태의 패턴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미래 도시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금호타이어는 매년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실적을 보여며 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25년째 이어온 지역사회

금호타이어의 지역사회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회활동 중 하나인 '명절 제수용품 전달' 행사는 지난 2002년 추석부터 시작해 올해로 25번째 이어오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들의 보다 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제수용품을 전달하면서 지역민들이 보내주는 여전한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담았다.

현재까지 약 1만1천6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명절 제수용품 전달과 더불어 연말에는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타이어 무상점검'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면서 지역 향토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임재만 기자